

문헌에 기록된 조선시대 단청의 종류 관련 용어에 대한 고찰

Semantic Analysis of Joseon *Dancheong* - related Terms in Literature Records

구 옥 희*

Koo, Uk-Hee

(명지대학교 건축공학박사)

Abstract

When identifying the dancheong during the Joseon Dynasty, a great number of the terms used [e.g., dancheong(丹青), geumbyeok(金碧), danhwak(丹靨), danbyeok(丹碧), dannok(丹綠), danchil(丹漆), hyuchil(髹漆), hyudong(髹彤), etc.] are found in literature records. However, the details are still veil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dancheong-related terms by analyzing their usages and contents based on literature records from the Joseon period. Architecturally, geumbyeok, danbyeok and dannok were used in temples, and dancheong was painted on walls. In the royal palace, danhwak was adopted while dancheong was also painted on these walls as well. Specifically, danchil was applied to the columns inside and outside buildings while hyudong was painted on rafter, walls and roof tiles. In addition, hyuchil was applied to the inside of the royal palace.

주제어 : 단청, 단화, 단칠, 휴칠, 문헌

Keywords : Dancheong, Danhwak, Danchil, Hyuchil, Literatur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문화재표준시방서』에서는 단청을 가칠단청, 굿기단청, 모로단청, 금모로단청, 금단청, 갓은금단청, 고색단청, 고색부분단청, 별화, 벽화로 구분하고 있다.¹⁾ 이 중 가칠단청, 굿기단청, 모로단청, 금모로단청, 금단청, 갓은금단청, 별화, 벽화는 단청의 종류라 할 수 있다.²⁾ 그러나 옛 문헌에는 단청을 단청(丹青), 금벽(金碧), 단화(丹靨), 단벽(丹碧), 단록(丹綠), 단칠(丹漆), 휴칠(髹漆), 휴동(髹彤) 등 상이한 용어로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옛 단청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단청(丹青)’이란 용어만이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으며, 금벽(金碧), 단화(丹靨), 단벽

(丹碧), 단록(丹綠)등은 선행연구를 통해 거론된 바는 있으나 아직 그 의미가 불분명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 교착제 별 구분이라 할 수 있는 단칠(丹漆), 휴칠(髹漆), 휴동(髹彤)에 대해서는 단청의 다른 이름으로만 규정되었을 뿐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용어이다. 이와 같이 단청관련 용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고, 아직 연구되지 못한 용어를 대상으로 그 용어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조선시대 단청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가 진행된 ‘단청(丹青)’과 아직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않은 ‘금벽(金碧)’은 새로 진행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그 뜻이 밝혀지지 않은 단화(丹靨), 단벽(丹碧), 단록(丹綠), 단칠(丹漆), 휴칠(髹漆), 휴동(髹彤)을 대상으로 그 의미와 사용처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연구대상 문헌은 한국고전db가 제공하는 번역본과

* Corresponding Author : xkikikb@naver.com

1) 문화재청, 『문화재표준시방서』, 문화재청, 2014, 301~302쪽.

2) ‘고색단청’은 옛 단청처럼 보이기 위해 퇴색한 색조를 사용한 현대의 도채방법이며, ‘고색부분단청’은 건물의 보수 중 일부 교체부재만을 옛 색조로 부분 보수하는 도채방법을 이른다.

고문헌, 기타 의궤류 등 조선시대 문헌이 주된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그 사용시기가 오래된 용어는 고대 문헌 일지라도 그 시초를 찾아 용어의 변천과정을 다소나마 파악해 보려고 한다. 또 옛 문헌의 내용은 단청의 세부를 언급하면서도 상당히 소략한 서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용어의 보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위해 중국과 일본의 문헌 또한 검토대상에 포함했다.

대상문헌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단청의 종류관련 용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사용사례가 있는지 정리해 건축물의 성격별·시대별 특징을 분석한다. 또 단청용어의 건물 부위별 쓰임과 재료적 특성과의 연계성을 분석해 그 용어의 특성을 선명히 한다. 더불어 단청의 종류를 건물의 위계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그 연관관계를 조사해 조선시대 단청의 위계를 추정해 보려고 한다.

2. 선행연구

2-1. 단청의 종류 관련 용어에 대한 선행연구

1955년 국립박물관에서 발간한 『미술고고학 용어집 - 건축 편』에서는 표제어로 단청, 진채, 진채화, 고분화, 금단청, 갓은금단청, 모루단청, 굿기단청, 금모루단청, 모루굿기단청을 제시해 최초로 단청의 종류를 구분했다. 또 예용해는 1960년~1962년까지 『한국일보』에 연재한 ‘인간문화재’에서 “사찰에는 가장 정교하고 공이 들어간 비단[錦]처럼 아름다운 ‘금단청’을, 비각·사당에는 열금단청, 궁전성곽에는 무늬가 크고 대범한 ‘모루단청’, 또는 ‘열머리단청’, ‘굿기단청’을 각각 올린다.”고 해 사용처에 따라 단청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³⁾ 그러나 한창균은 1996년 『북한고고학 미술사 용어집』에서 예용해가 금단청을 궁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한 것과 달리 궁전, 절간의 주요건물에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했다.⁴⁾

1974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문화재표준시방서』를 공포해 단청을 굿기단청, 모루단청, 금단청으로 구분했다.⁵⁾ 또 신영훈은 1977년 「색채론과 도학」에서 각

단청의 종류별 특성에 대해 서술했다. ‘굿기단청’은 “직선을 써서 무늬를 형성한 것”으로, ‘모루단청’은 창방, “도리목의 좌우 끝에 머리초를 배치해 마치 스란치마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단청”이라 했다. 금단청은 “머리초와 비단무늬의 여러 가지를 그려 넣고 더 화려하고 값지게 보이도록 한 것”으로 서술했다. ‘모루굿기단청’은 “굿기에 모루단청의 요소를 첨가시킨 것”이라 하고 ‘금모루단청’은 “모루단청의 머리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풍에 금(鎊)무늬를 삽입해 화려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라 했다. ‘갓은금단청’에 대해서는 “금단청 머리초와 계풍에 비단무늬를 빈틈없이 배운 것은 금단청과 같으나 대량 등에 금박을 입혔거나 기둥에 주의(柱衣)를 그리는 등 한층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말한다.”고 서술했다. 또 단청을 단호(丹腹), 단벽(丹碧), 단록(丹綠), 진채(眞彩), 당채(唐彩), 오채(五彩)라 부른다고 했다.⁶⁾

이정철은 1978년 「단청의 의의 및 기법」에서 오래전에 쓰이던 특수공법으로 고분단청을 분류하고, 가칠단청⁷⁾을 처음으로 단청의 종류에 포함시켰다.⁸⁾

장기인·한석성은 『丹青』에서 단청의 종류와 함께, 각종 채색법으로 진채와 고분채색, 생채색, 밀타회채색, 칠보문도채, 옷칠을 구분했다. 또 결합재의 종류로 유지와 각종유지, 납, 천연수지, 역청질, 옷·카슈, 카제인·야고르를 제시하고 연마용제에 관해 서술했다.⁹⁾

임영주는 1980년 「단청」에서 “지금은 목조건물에 설치하는 일 또는 그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단청을 한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고대에는 그 이념이 더욱 넓어지고 그 명칭도 각기 달라진다.”고 했다. 또 신영훈이 제시한 단청의 유사어 외에 단주(丹朱), 단동(丹彤), 단칠(丹漆)을 추가하고, 이 용어들은 “붉고 푸른빛으로 선명하게 채색하는 것”을 의미하며, 옛 궁궐을 ‘단궐(丹陛)’라 부른다고 했다.¹⁰⁾ 2007년 임영주·전한효는

6) 신영훈, 「색채론과 도학」, 『문화재보수기술교재』, 문화재관리국, 1977, 324~325쪽

7) 한창균의 앞의 책, 12쪽. -“가칠”; 단청을 할 때 애벌로 색칠하는 것. / 張起仁·韓奭成의 앞의 책, 33쪽. -“가칠단청”; 가칠은 그 자체가 마무리 칠이 될 때도 있고, 굿기·모루 및 금단청의 바탕칠로 될 때도 있다.

8) 이정철, 「단청의 의의 및 기법」, 『문화재보수기술교재』, 문화재관리국, 1978, 255쪽

9) 張起仁·韓奭成, 『韓國建築大系Ⅲ, 丹青』, 普成閣, 1998, 33~40쪽. 91~93쪽

10) 임영주, 「단청」, 『문화재보수기술교재』, 문화재관리국, 1980, 89쪽

3) 예용해,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 81호』, 문화재관리국, 1970, 38~54쪽

4) 한창균, 『북한고고학 미술사 용어집』, 백산자료원, 1996, 58, 142, 354쪽. 북한에서는 단청을 가장 높은 등급의 금단청(鎊丹青), 중간등급의 모루단청(=中丹青), 가장 낮은 등급의 범단청(=靑土丹青)의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북한고고학 미술사 용어집』은 1992년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에서 펴낸 『조선말대사전』에 기록된 용어 중 고고학과 미술사 관련 내용을 정리해 펴낸 것이다.

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표준시방서』, 문화재관리국, 1974, 49쪽

표 1. 단청(丹青) 관련 문헌 기록

No	년도	번역문	원문	문헌
1	1397	조 정승 준의 진영의 찬문 그 누가 그렸는가, 단청이 환하게 빛나네	[趙政丞浚眞贊] 孰其狀之 炳煥丹青.	삼봉집 제4권 찬
2	1450, 4, 10	대자암 단청을 중국에 가서 구해 사고	大慈庵 買求丹青于中國	문종실록
3	1514	그 당시에 팔준마를 타던 기상 생각하여 화공에게 그 웅대한 자태 그리게 하였네	想象時乘八駿御 顧謂丹青肖雄姿	삼단집 제1 권, 시
4	1530	궁실(宮室)의 제도는 중화와 같아서 모두 단청을 칠하고 이 나 라(조선)에는 은주(銀硃)가 없기 때문에 단청(丹青)으로 대신한 다. 오동나무기름도 없다.	宮室之制 與華亦同 其塗皆丹 國 無銀硃 以丹代之 桐油亦無	동국여지승 람1, 경도 상
5	1879, 3,25	희정당 양관 “지은 것이 매우 정교하고 단청이 매우 아름다우나 그 크기에 있어서는 궁궐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制作甚巧, 丹青極鮮, 而其大則似 不及於宮闕矣.	승정원일기

『우리나라의 단청』에서 『삼국사기』 「술거조」의 기록과 황룡사의 <노송도>의 서술 내용을 근거로, ‘단청’은 “여러 가지 채색을 이용해 건물을 단청하거나 그림을 그려 치장하는 것”, 또는 그 ‘행위’를 일컫는 용어일 뿐 아니라, “단청이 곧 회화를 일컫는다.”고 주장했다. 또 ‘단벽’은 붉은빛과 푸른빛, ‘단칠’은 붉은 칠, ‘단확’은 선명하게 붉은 흙, ‘단둥’은 붉은 칠이라고 해, 글자의 뜻에 의미를 두고 해석했으며 단칠, 단확, 단둥, 단록에 대해서는 단청의 다른 이름으로만 간략히 기술했다.¹¹⁾ 1996년 한창균은 “‘금벽’은 누른빛과 푸른빛의 아름다운 색깔을 이르며, 금벽산수는 금벽으로 그린 풍경화로 금니로 테두리 줄을 그리기도 한다.”고 정의하고, ‘청록산수’를 ‘금벽산수’와 동의어로 기록했다.¹²⁾ 2016년 이은희는 “단청과 금벽을 회화에서 온 용어”로 정리했다.¹³⁾ 2017년 구옥희는 의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청의 교차계 별 분류를 시도하고, “‘단확’은 붉은 색조를 중심으로 한 단청, ‘금벽’은 금색과 푸른색조의 휘황찬란한 단청, ‘휴동(髹彤)’은 서까래 칠 등에 사용하는 유칠”로 서술했다.¹⁴⁾

3. 양식에 따른 단청의 종류 관련 용어

3-1. 단청(丹青)

사전에 단청은 “집의 벽과 기둥·천장 등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과 무늬를 그리는 것이라 하고, 붉은 빛과 푸른빛”이라 정의했다.¹⁵⁾ 대체로 이 내용은 임영

11) 임영주·전한효, 『문양으로 읽어보는 우리나라의 단청』, 태학원, 2007, 15~19쪽.

12) 한창균, 앞의 책, 12쪽

13) 이은희, 「고려시대 단청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23쪽

14) 구옥희, 「17세기 이후 궁궐단청의 복원을 위한 시험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9~10쪽·19쪽

주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단청에 대한 기본사항은 선행연구로 일별하고, 단청 안료의 특성과 초상화, 그리고 기량이 뛰어난 화가를 단청으로 지칭한 사례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그림 1. 단청(丹青)을 한 것으로 기록된 희정당 양관 (출처 : 경향신문 2018년 11월1일 기사)

<표 1>의 문헌에는 중국에서 구입한 안료를 단청이라 했고, 붉은색 안료를 은주(銀硃)와 단사(丹砂)로 구분해, 단청에 사용한 붉은색은 ‘단사(丹砂)’라고 했다. 또 “조선에서는 은주(銀硃)가 생산되지 않아 단청을 사용한다.”고 하며, 단청은 단사(丹砂)와 청확(靑靨)을 사용한 것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중국 [後漢]대의 『漢書』 「司馬相如傳」에서는 “‘丹青’의 ‘丹’은 ‘단사(丹砂)’로 지금의 ‘주사(朱砂)’이며, ‘靑’은 청색과 ‘청확(靑靨)’으로 지금의 공청[空靑=楊梅靑, 녹청색을 가리킴]이다.”라고 했다.¹⁶⁾

위 내용을 통해 볼 때 『동국여지승람1』, 「경도 상(京都上)」에 기록된 “丹”은 수은이 주성분인 ‘단사(丹

1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한국한자어사전』, 1996, -“丹青”.

16) [東漢] 班固, 『漢書·司馬相如傳』: “其土則丹青赭黃”, 顏師古注: “張揖曰: 丹, 丹砂也. 今之朱砂也. 靑, 靑靨, 今之空靑也.”

22 논문

표 2. 금벽(金碧) 관련 문헌 기록

No	년도	번역문	원문	문헌
1	1450, 9, 17.	대자암의 극락전 대자암 극락전이 완성되니 극도로 사치하고 화려해 금벽이 햇빛에 번쩍거렸다.	大慈庵極樂殿成, 窮極侈麗, 金碧耀日	문종실록
2	1654, 6, 23.	공주의 사치로운 사택 공주 저택이 제도보다 지나친 것을 …어린 아이로 하여금 크고 넓은 집에 거처하게 하고 금벽과 주취 (朱翠)로 꾸몄으니….	莫不以公主第宅之踰制爲言, …使幼冲之 兒, 居于巨室廣廈, 飾以金碧, 朱翠, ….	효종실록
3	17 세 기	중선암의 석양 경치 “금벽 일렁이는 못물이로세	中仙巖 古潭澄金碧	농암집 제3권

砂)가 아닌, 색이 ‘丹’색[적황색]인 산화철을 주성분인 ‘적토(赤土)’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에서는 “준의 진영[(眞贐), 영정의 찬문(贊文)]”과 “주인공이 말을 타는 장면”을 그린 그림 또한 단청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초상화를 단청으로 기술한 사례는 조선말기 제작된 어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 옛 사람들은 “화가가 가진 재주”를 ‘단청’이라 하고, 걸출한 화가를 “단청의 명인”이라고도 했다. 민간에서는 모범적인 화공을 “단청묘수(丹青妙手)”라고 해¹⁷⁾ 단청이란 용어는 최상의 그림과 실력을 갖춘 화가와 작품, 그 기술을 의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금벽(金碧)

『삼국유사』, 「황룡사9층탑 조」에는 황룡사 9층탑을 “금벽휘황(金碧輝煌)’으로 장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사전에 ‘금벽(金碧)’은 “금빛과 푸른빛”을 말하며, ‘금벽산수’는 “당나라(唐) 때 사훈이 처음으로 시작한 산수화기법으로 산봉우리와 바위 따위의 선은 금물을 녹즙(綠汁)과 섞어 쓰고, 산석(山石)은 황금빛으로 하여 화려하게 그리는 당나라 화풍의 산수화(山水畫)를 일컫는다.”고 했다.¹⁸⁾ 중국 당대(唐代) 궁궐과 불교·도교 사원에는 인물화를 비롯해 화조화·동물화·산수화를 소재로 한 벽화를 제작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때 귀족취향의 청록산수화를 널리 사용했다.¹⁹⁾ 이러한 벽화의 전통은 사찰 벽화를 통해 그 맥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7) 遇見眞 發現美. 『藝術百科』: 古人把畫家稱爲丹青手, 把優秀畫家稱爲丹青妙手. 民間則稱畫工爲丹青師傅. 丹青比植物性顏料保存時間長, 不易褪色, 此常用來比喻堅貞: 丹青不渝.

1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한국한자어사전』 - ‘金碧’.

19) 김홍남, 「중국고대회화의 탄생과 전개」, 『중국고대회화의 탄생』, 국립중앙박물관, 2008. 35~36쪽



그림 2. 오쓰 별원(大津別院)의 에도시대(江戸, 1603-1867) 금벽장벽화 (金碧障壁畫), (출처: 京都新聞社 2018년 5월 14일 기사)



그림 3. 돈황158굴 동벽남측 벽화. (중당기中唐期, 767-835), (출처: 돈황석굴 7)

일본에서는 ‘金碧’을 녹색으로 산수를 그리고 장식성을 높이기 위해 산과 바위에 금니(金泥)로 윤곽선을 그린 산수화 기법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으며, 모모야마 시대(桃山時代, 1573-1600)에는 금벽 장벽화(障壁畫)가 유행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⁰⁾ <그림 2>는 진종 오타니파(眞宗大谷派)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의 오쓰 별원(大津別院) 내부 장벽에 금벽으로 그려진 벽

20) 『デジタル大辭泉(小學館)』 - ‘金碧’. ‘金碧障壁畫’.

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부벽에 목재로 틀을 만들고 따로 그린 그림을 붙이는 벽화를 ‘첩부벽화’라 한다. 이 오쓰 별원의 벽화를 통해 조선 금벽단청의 모습도 상상이 가능하다.

또 돈황에서 발견된 티벳 경전 『반야경 팔천송(般若經八千頌)』에는 “裝飾得輝煌金碧也,算是積德.”라 해 “금벽회황’으로 장식을 해야 덕을 쌓을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고대의 기록은 ‘금벽’이란 용어가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었으며, 그 용어가 불교에서 유래한 것임을 보여준다.²¹⁾ <표 2>의 문헌 내용을 보면 “극도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우며, 금빛으로 번쩍인다.”거나, “금벽(金碧)과 주취(朱翠)로 꾸민 사치스런”, “황금벽옥이 일렁이는”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위 <그림 3>은 돈황벽화 중 건물부분으로, ‘금벽회황’ 장식의 한 사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중당기[中唐期, 767-835]²²⁾에 제작된 이 벽화에는, 적색가칠이 주를 이루던 이전 시기의 단청과 달리 화반과 기둥 위 초엽에 청록색을 칠하고, 창방부위에는 원모양 등의 다양한 그림을 그려 넣거나, 띠 모양으로 기둥 중간을 꾸미는 등 화려한 모습이다. 특히 <그림 3>의 흰 점선으로 표시한 행랑 내부 벽면에는 금벽산수화로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림 3>의 단청은 조선시대처럼 흰 부재 전체에 뇌록칠을 하지는 않았으나, 뇌록과 붉은색, 황색 등 다양한 색조의 갖가지 무늬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어 문헌 속 ‘금벽’ 단청의 서술내용과 일치한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 ‘금벽’이란 용어는 고대부터 17-18세기경 까지 운용되다 조선 후기가 되면 거의 사용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금단청(鎏丹青)과 조선시대 금벽단청(金碧丹青)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위 문헌조사 내용으로 보면, 금벽단청은 금색과 벽색의 고귀한 색을 이용해 문양과 그림으로 장식했으며, 주취 등 보석을 붙이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화려함을 나타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지금의 금단청(鎏丹青)은 비단이 아닌 비단무늬를 그려 넣는 방식으로 그 장식을 대신했다. 즉 두 단청의 차이는 전자(鎏碧丹青)는 실제 사물을 직접 부착해 장식하던 기법을 사용하는데 반해, 후자(鎏

丹青)는 이를 상징화시키고 문양화해 도안으로 나타내는 간접적 표현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3-3. 단확(丹靨)



그림 4. 단확(丹靨)을 한 것으로 기록된 동묘정전

사전에서 ‘단확(丹靨)’은 “고운 빨간 빛깔의 흙으로 입힌 단청을 이른다.”²³⁾고 정의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흙이 주 성분인 아주 붉은 빛깔의 적색안료를 사용한 단청을 단확이라 하고 왕에게 적용된다고 했다. 송대 『思故山賦』에는 “저자거리에 모인 모든 이가 바라다 보는 탑과 묘에 단확을 적용한다.”고 쓰여 있다.²⁴⁾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에서는 “마루대와 추녀 끝을 제외하고, 차가운 비취색을 당(堂)에 입힌다.”²⁵⁾고 했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황색 초엽이 곳곳에 두루 미쳐 바람이 부는 듯 구슬프다.”²⁶⁾거나, “칠이 석양의 그림자와 같이 어슴푸레해 아름답다.”고도 했다.²⁷⁾ 위 묘사 내용을 보면, 기둥과 인방재 등에는 주토 또는 석간주를, 상부가구에는 비취색을 칠해 곳곳에 황색초엽을 그려 넣은 모습이 청초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던 것으로 보여 조선의 ‘상록하단’의 단청양식을 연상케 한다.

단확은 <표 3>의 문헌에서 경복궁 근정전을 비롯해 관왕묘와 서원, 객관, 장안문, 창룡문 등 관립건축물과 청의 사신을 맞이한 정자나 국가에서 단확을 내려 단청을 하게 한 사찰에서 사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관왕묘인 ‘동묘정전’으로, 이와 같은 단

21) 대승불교의 초기경전인 이 경전은 기원전 1세기경부터 편찬되기 시작했으며, 신라에서는 반야에 입각해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 호국이 완성될 수 있다고 여겼다. (이기영, 『불전해설』, 한국불교연구원, 1978, 58~68쪽)

22) 송나라 엄우가 당(唐)을 초당(初唐, 618-711), 당(唐, 713-766), 중당(中唐, 767-835), 만당(晩唐, 836-907)의 네 시기로 나눈 것에서 유래되었다. (학술정보원, 『한국고전용어사전』 - “四唐”)

23) 학술정보원, 『한국고전용어사전』 - ‘丹靨’.

24) [宋] 陸游, 『思故山賦』 “歷市聚之鷄犬, 望塔廟之~.”

25) [宋] 『續資治通鑑』 孝宗淳熙七年: “從至 翠寒堂, 棟宇不加~.”

26) [宋] 魏秀仁, 『花月痕』 第五回: “黃芦匝地, 悲風吹 塗飾色彩.”

27) 『蒿里』之音; “~孔涂, 落日下桂旗之影.”

24 논문

표 3. 단확(丹獲) 관련 문헌 기록

No	년도	번역문	원문	문헌
1	1453, 10,25.	무릇 영선에 있어, 크면 재목·기와·철·돌 같은 물건과 작으면 단확 같은 모든 필요한 것을 자기 물건 쓰듯 하였다.	凡諸營繕，大而材瓦，鐵石等物，小而丹獲，凡其所需，如用己物。	단종실록
2	1475,6, 11	“근정전의 단확을 보니, 미진한 곳이 많습니다.	臣伏覩勤政殿丹獲，多有未盡處。	성종실록
3	1478	큰 집에 단확을 하지 않으면 어찌 궁궐의 체모를 지니겠는가.	大廈無丹獲之施 皇居易副	동문선 제18권
4	1613	관왕묘비 높고 높은 전당에 나는 듯 한 주랑 붉게 채워 단확하였다네	勅建顯靈關王廟碑 崇崇殿堂 翼翼周廊 施獲填紅	성소부부고 제16권
5	1744	백봉서원 중수기 처마를 갈고 칠을 다시 하여 단확을 새롭게 하였으니,	易檐改塗 以新其丹獲	성호전집 제53권
6	1865	궁실(宮室)은 오직 터를 굳게 다지지 않는 때문에 단확이 마르기도 전에 주초가 무너져 내린다.	且曰宮室唯築基不堅 故丹獲未乾 而礎先潰	다산시문집 14권

청 형식을 현재는 모루단청이라 부르고 있다. 단확을 한 것으로 기록된 동묘 정전은 단묘건축물의 기둥 하부에 적용되는 “백룡화지에 청룡화지로 띠를 두른 ‘주근도배’에서 유래 한 단청”이 도채 되어 있다는 점만이 특이할 뿐, 다른 모루단청과 특별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단확은 조선이전시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전 시기에 걸쳐 사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3-4. 단벽(丹碧)

문헌에서는 “건축물 혹은 기물에 색을 입히는 것이 단벽이며, 임금이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된 법으로, 높은 마루대의 텅 빈 공간에 새기는 것”²⁸⁾이라고 했다. “옛 장안에 차가운 옥돌을 개의 형상으로 다듬고 있는 장인이 있었다. 의복을 입히듯 단벽으로 장식해 안색을 맞추니 새로 태어난 듯 진짜 같았다.”²⁹⁾는 고사에도 ‘단벽’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청대(清代)문헌에는 “신령하고 섬세해 다재다능하며, 바둑을 잘 두고 시를 잘 짓는 등, 기예와 학문을 겸비한 것을 단벽에 뛰어난다.”고 하였으며,³⁰⁾ 단청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가리킨다고도 했다. 벽(碧)색의 제조과정을 설명한 내용도 있다. 벽색은 ‘녹청색조’로 『莊子·外物』에서는 벽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비 애벌레 구해서 죽이고 만초에



그림 5. 단벽(丹碧)을 한 것으로 기록된 부벽루의 단청(북한, 국보급 제17호) (출처: 조선향토대백과, 2008.)

넓게 펴 광에 넣고 3년이 지나면 그 피가 벽색이 된다.”고 해³¹⁾ 유기안료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를 보면 단벽은 쌍영당·연복사5층탑·부벽루 등 지방의 루와 당, 사찰의 탑에 사용되었으며, <표 4>의 문헌 3에서는 “절에 있는 그림 한 폭”을 ‘단벽’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그림 5>는 단벽단청을 한 것으로 기록된 북한의 부벽루이다.³²⁾ 복원된 이 건물은 현재 “금모로 단청”이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단청과 단벽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문헌을 보면 단청이 초상화·화조화 등 그 기예의 출중함을 상징한다면, 단벽(丹碧)은 식물문양을 주된 재재로 사용해 “조화롭거나 과하지

28) [宋] 陸游 『桃源憶故人·應靈道中』詞：“丹碧未乾人去，高棟空留句。”

29) [清] 唐甄 『潛書·非文』：“昔京師有琢冰爲人狗之形者，被以衣裳，綴以丹碧，神色如生，形制如眞。”

30) [清] 王暉 『今世說·寵禮』：“史鑒宗，心灵敏，多藝能，能詩善弈，工字學，兼精丹碧。”

31) [先秦] 庄周 『莊子·外物』：“蓼弘死于蜀，藏其血，三年而化爲碧。”

32) 부벽루(浮碧樓)는 평양 대동강변 청류벽(淸流壁) 위에 있는 누정으로, 1614년 중건한 후 1956년과 1959년 두 차례에 걸쳐 복원공사를 진행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浮碧樓”)

표 4. 단벽(丹碧)관련 용어의 문헌 기록

No	년도	번역문	원문	문헌
1	1478	쌍청당 기 단벽을 하고 담장을 둘렀는데, 화려해도 사치하지 않았다.	雙清堂記 丹碧繚垣 華而不侈	동문선 제82권
2	1478	연복사탑 중창기 5층탑을 다시 세워 공사를 마치되 농민의 힘을 번거롭게 하지는 않았다네. 높다랗고 우뚝함은 송악과 맞먹는데 구름과 노을이 비취 단벽이 눈부시네	演福寺塔重創記 五層復建畢工役 經構不擾農民力 崢嶸突兀配崧嶽 輝映雲霞耀丹碧	동문선 제78권
3	1574, 5,15.	절에 옛 그림 한 폭이 있었는데 연기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서 단벽이 흐려져 있었다	寺有古畫一幅 煙煤汙染 丹碧適已新 輪奐美如許	연행록선집, 조천기: 중국
4	18세기	부벽루 중수 단벽도 마침 새롭게 단장을 마쳐서 이처럼 훌륭하게 낙성이 되었다오	重修浮碧樓 丹碧適已新 輪奐美如許	죽석관유집

표 5. 단록(단록)관련 용어의 문헌 기록

No	년도	번역문	원문	문헌
1	1658	상 고란사 수수한 대를 세우지 않은 것이 기이하며 단록으로 어우러져 있다	上高蘭寺 溫臺豎不奇 丹綠紛參	수색집 2권
2	1721	임소정기 앞쪽 편액에는 임소정이라 쓰여 있으며, 그 뒤쪽에는 후선각이라 써 글로써 단록을 했다.	臨沼亭記 扁其前曰臨沼之亭 其背曰候仙之閣 文以丹綠	명곡집 9권
3	1784	단록이 수풀에 가리워 덮여져 우거져있는데 희미하게 가장자리에 획이 그어져 있다	丹綠蔚掩映 依稀一畫幅	경암집 1권
4	1840년경	강 주위의 두 연기기록 단록 2석을 얻었다.	渭原二硯銘 得丹綠二石爲之硯	연경재전집 15권
5	1854	유청못 어느 집 망루 와운은 단록으로 눈부시게 새기고 장식해 동서에 방과 실을 배치했다.	遊淸潭 臥雲誰家樓 丹綠炫雕飾 東西置房室	풍고집 1권, 시
6	1865	홍주 용봉사 낡은 절간 단록이 흐려 어둡네	洪州龍鳳寺 古殿暗丹綠	다산 시문집2권, 시
7	조선 후기	초연대중건소지 난간에 단록을 칠했다.	超然臺重建小識 欄檻塗丹綠.	해석유고 8권

많은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두 용어 모두 그림과 문양을 의미하지만 섬세하고 출중한 기예로 표현한 것이 단청이며, 임금이 사용하지 않는 사찰전각과 누각 등 중간등급의 건물에 적용된 단청을 단벽이라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단록(단록)

사전에는 ‘단록(丹綠)’ 또한 “단청의 유사어”로 적고 있다.³³⁾ 1944년 일본에서 조사한 기록에는 “단록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광물로 강원도 금화군에서 동 춘천 지역 인접한 화강암지대에서 거정 화강암[Pegmatite] 암맥을 다수 찾을 수 있다.”고 했다.³⁴⁾ ‘녹주석(綠柱石)’이라고도 불리는 이 암석은 청록색을 띠며, 아름다

운 것은 에메랄드로 사용된다고 한다.³⁵⁾ <표 5>를 보면 단록은 상 고란사, 용봉사, 임소정 등 산사와 초옥 등에 사용되었다. 위 내용으로 볼 때 단록은 에메랄드빛으로 칠한 단청으로, <문헌 3>에서 “희미하게 가장자리에 선만 보인다.”는 기록으로 볼 때 “부재의 양 끝단과 상하에 먹·분선을 넣는 ‘긋기’”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단록은 “녹색조를 띠”, ‘소박한’ 등의 표현으로 볼 때, 청토바르기를 바탕칠로 사용한 긋기단청과 유사한 형식의 단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모루단청은 등황색을 사용해 ‘알록달록하다’ 또는 ‘화사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록은 조선중기이후 출현해 근대기까지 그 사용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33) 학술정보원, 『한국고전용어사전』 - ‘단록’.

34) 田久保, 實太郎; 滑川, 眞吉, 『朝鮮丹綠鑛山地域の稀元素鑛物に就て』, 京都大學, 1944, 72쪽

35) 이창진, 『기본광물·암석용어집』 - “Pegmatite”, 한국학술정보, 2010

표 6. 단칠(丹漆) 관련 용어의 문헌 기록

No	년도	번역문	원문	문헌
1	1603, 8, 9	한집에 드나들며 세월이 점점 오래 갈수록 훈유(薰猶)는 냄새를 달리하고 단칠은 빛깔을 달리하므로.	出入一家, 日月漸多, 薰猶殊臭, 丹漆異色, 其氣之所加,	선조실록
2	1635, 11.	<u>청평사</u> 법당의 서북 모퉁이에는 극락전이 있는데, 이 역시 보우가 세운 것으로 금벽과 단칠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보통 절과는 달랐다.	法堂西北隅有極樂殿.亦普雨所建.金碧丹漆.僭侈異常.	청음집 제10권, 청평록
3	17세기	<u>연안부 평원당</u> 보기에 재목이 썩고, 주춧돌이 기울고 단칠이 벗겨지고 떨어져 나갔다.	延安府平遠堂 見其材朽礎傾.丹漆墜剝.	남계집
4	1711, 8,29	<u>적관(赤關)에서 와 영접하는 배</u> 채선(彩船)은 각 한 척인데, 단칠은 햇빛에 빛나고 금벽이 영롱하였다.	彩船各一隻. 丹漆映日. 金碧玲瓏.	동사일기 건
5	1767, 2,19.	<u>내전에서 지널 갈고리는 주석자루(錫杖)를 쓰고 단칠을 사용하라.</u> 하니, 도제조가 말하기를, “중궁전의 갈고리를 단칠로 하는 것은 너무 박할 듯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질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방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內殿所執鉤子, 令尙方舉行, 而鉤子用錫杖, 則以龍丹爲之.” 都提調韓翼誓曰: “中宮殿鉤子龍丹漆, 似太薄矣.” 上曰: “質朴何妨耶?”	영조실록
6	1760	<u>심양 궁궐</u> 보광전에 도착하니 금화가 더욱 번쩍이고 있다. 대개 누른 빛깔의 기와를 가지고 긴 담도 또한 누른빛으로 덮였으니 ... 안과 밖의 기둥은 모두 단칠로 칠하였고, 금으로 용을 그렸다.	至寶光殿 金釀光照耀蓋以 黃尾長墻亦覆以黃 ... 內外楹皆 用丹漆而 以金畫龍	북원록 제2권: 중국 사행록
8	1804	<u>배와 수레</u> 바퀴살엔 모두 단칠을 했다.	舟車 輪輻皆塗丹漆者.	계산기정
9	19세기 초	<u>극락전</u> 단칠과 금벽 오욕의 수정전 요승의 진리인가 심히 일국의 무너진 절	丹漆與金碧.汚此水晶殿.妖僧眞可斬. 一國竭一院.	경수당전고 ³⁶⁾

4. 교착제에 따른 단칠의 종류관련 용어

4-1. 단칠(丹漆)

사전에 ‘단칠(丹漆)’은 “붉은 칠”이며, “붉은 칠을 한 적대”를 ‘단칠조(丹漆俎)’, “붉은 칠을 한 좌석”을 ‘단칠좌(丹漆座)’라고 하였다.³⁷⁾ 이 내용을 근거로 대부분의 문헌해석에는 단칠을 “붉은색 옷칠”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단칠은 유칠(油漆)로 파악된다. 문헌에 기록된 재료의 특성을 살펴보자. 단칠은 적색과 흑색이 있으며³⁸⁾ 대개는 붉은 칠을 사용했다.³⁹⁾ 단칠은 외관이 화려하고 무두질 한 가죽과 기름으로 매끈하게 광택을 내며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⁴⁰⁾ 칠 하는 방법은 원하는 부위에 나무를 가지고 그 위에 단칠을 했으며⁴¹⁾ 바탕의 재목이 달라지거나, 가공하지 않은 거친



그림 6. 단칠을 한 것으로 기록된 중국 심양고궁 보광전 (출처: <http://www.travelchina.gov.cn>)

면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주로 바탕칠에 사용했다고 한다.⁴²⁾ 단칠은 어리석은 자는 사용할 수 없었으며 감독의 정확한 규율에 따라⁴³⁾ 털을 제거한 개가죽이나 양가죽 또는, 단단한 암 외뿔소의 가죽과 색료를 적절

36) [南朝] 梁 劉勰 『文心雕龍·情采』: “虎豹無文, 則鞞同犬羊; 犀兕有皮, 而色資丹漆; 質待文也.”

3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한국한자어사전』 -‘丹漆’; 『선화봉사고려도경 제28권, 공장1』; 丹漆俎. 蓋玉宮平日所用也.

38) [晉] 葛洪 『抱朴子·守壻』; 紅色和黑色.

39) [漢] 王充, 『論衡·亂龍』; 用朱漆塗飾.

40) [清] 陳夢雷 『木瘦瓠賦』: “睹丹漆之輝煌兮, 滑澤脂韋而易毀也.”

41) [漢] 王充 『論衡·亂龍』: “鈞者以木爲魚, 丹漆其身.

42) [晉] 張華 『勵志詩』: “如彼梓材, 弗動丹漆. 雖勞朴斲, 終負素質.”

43) 紅色和黑色. [晉] 葛洪 『抱朴子·守壻』: “夫贖者不可督之以分雅鄭, 瞽者不可責之以別丹漆.”

표 7. 휴동(髹彤) 관련 용어의 문헌 기록

No	년도	번역문	원문	문헌
1	1241	담과 벽에 휴동이 휘황하고 지초 그린 도리와 구름 그린 기둥이 햇빛에 반사되어 오색이 영롱하니	堂 墻壁輝髹彤 芝栖與雲窠 映日爭玲瓏	동국이상국집 10권
2	1478	최승재의 십자각 기 휴동 칠은 녹색이며 아로 새긴 무늬는 노을이 빛나듯 찬란하고 살포시 일렁이는 구름모양으로 혹은 밝은 달이 빛을 뿜는 듯 하고 혹은 무성한 별이 광채를 퍼는 것 같으므로	其髹彤漆綠雕綵之飾 則赫杔璀璨 霞駁 雲蔚 或如明月之流光 或若繁星之布彩	동문선66권
3	1645	서산 동헌 휴동 칠을 한 채색 벽에 비단이기 수놓았네.	彩壁髹彤繡錦苔	백담집4권

히 다루는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교착제로는 기름과 아교를 사용하며, 오색 단칠로 장식한 후에야 비로소 그 신령스런 형상의 장엄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한다.⁴⁴⁾

단칠을 사용한 건물로는 <표 6>의 청평사 극락전, 연안부 평원당, 사찰 극락전, 심양고궁의 보광전 기둥에 사용기록이 남아있다. 기물의 칠로는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그릇인 정비(鼎匕)⁴⁵⁾와 활과 화살을 만들 때에도 이용되었다.⁴⁶⁾그밖에 인쇄공이 판본을 조각할 수 없을 때, 또 책을 인쇄할 때,⁴⁷⁾ 거문고와 비파를 고칠 수 없을 때 단칠을 이용해 청음과 탁음을 다스렸다고 한다. 단칠은 목재에 사용하는 옷칠과 달리 금속 등 다양한 재질에 사용할 수 있어, 내구성이 필요한 기둥과 난간, 바퀴살, 고리 등 특정부위의 바탕칠로 이용되었다. 단칠은 색상이 풍부하고 가격이 낮은 탁월한 칠 재료라 했다.⁴⁸⁾ 이외에 14세기 삼현의 신궁 낙성 시 단칠을 거두되던 기사⁴⁹⁾가 조선시대 사료 중 가장 이른 기록이나 고려이전부터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시대 유칠의 사용은 궁궐에 소속된 장인조직에 유칠장이 속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유칠장(油漆匠)’은 경공장(京工匠)으로 상의원과 군기시에 각2인이 소속되어 있었다.⁵⁰⁾ 유칠장은 칠을 하고 관전(關磚)을 깔고 인조(引條)를 만든 후 난간과 간주(間柱), 창

주(戢柱)를 드러나도록 할 때 쓰는 오동나무 기름과 밀타승과 정홍(定紅)의 양은 볶고, 칠하고 섞는 공정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⁵¹⁾ 위 내용을 통해서도 기둥과 난간에 붉은색유칠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기 중화전의 영건 시에도 “朱紅磨里漆”이라는 광유(胡光油)를 이용한 유칠을 중화전 기둥에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다.⁵²⁾

4-2. 휴동(髹彤)

중국에서는 칠로 도장하는 것을 ‘髹(휴)’, 장식하는 것을 ‘飾(식)’이라고 해 고대부터 ‘髹飾(휴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彤(동)’은 일종의 적색 관모양의 어린 초엽⁵³⁾을 가리키며, ‘彤庭(彤庭)’은 한 대 황궁 중정의 주홍색 칠을 이르는 용어로, 후에는 임금의 궁궐을 가리킨다고 했다.⁵⁴⁾

휴동은 <표 7>의 십자각, 동헌, 당(堂)의 담과 벽, 서까래 등에 사용되었다. <표 7> 1의 『동국이상국집』에서도 “墻壁輝髹彤 芝栖與雲窠 映日爭玲瓏”라고 해 담과 벽에 휴동칠을 했으며, <표 7> 3에서도 “彩壁髹彤繡錦苔”라고 해 벽에 휴동칠을 한 것으로 적고 있어, 『洪州東門記』의 “其瓦甃金石髹彤聖之費, 取于庫錢之常入者.”의 내용 중 벽와 돌, 기와에 칠한 단청기법이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이 벽과 서까래 및 기와는 방수가 필요한 부위로 중국에서는 이 부위에 유칠의 일종인 역청칠을 해왔다. 사전에도 휴동은 단칠이며⁵⁵⁾ 서까래 위에 색으로 그림이나 빛깔을 넣거나, 그릇을 장식할 때, 홀(忽)⁵⁶⁾을 갈아

44) [唐] 沈亞之『移佛記』卷六：“堅之以脂膠，飾之丹漆五色，然後形神儼然成其像。

45) 『사직서의례 권1』 「제기도설」; 禮書云匕長三尺用棘所以載牲體也集禮云刻畫雲氣葉長八寸博三寸皆丹漆畢狀如叉用以舉肉葉博三寸中鏤去一寸柄長二尺四寸漆柄末及兩葉皆朱。

46) [周] 『禮記·月令』：“季春之月，命百工，審五庫之量……金鐵，皮革筋，角齒，羽箭干，脂膠丹漆，毋或不良。

47) [南朝, 宋] 范曄, 『後漢書·祭祀志上』：“時以印工不能刻玉牒，欲用丹漆書之。”

48) [五代] 王定保 『唐摭言·統序科第』：“琴瑟不改：而清濁殊涂；丹漆不施，而丰儉异致。”

49) 『동사강목 제14상』, 동 11월, 삼현(三峴)의 신궁(新宮); 제도에서 단칠(丹漆)을 거두었는데….

50) 『經國大典』, 「工典」

51) 『揚州畫舫錄 권17』, 「工段營造錄」; 油漆匠油飾關磚引條，露明欄幹，間柱戢柱。桐油，陀僧，定紅斤兩，熬油打雜各有差。裏頭雁翅，亦以寬長折料計工；石磯，跳板借用不估。

52) 1904, 『경운궁중건도감의례』, 「工匠」

53) 『漢語詞典』 - ‘彤’; 說是紅色管狀的初生之草。

54) 『漢語詞典』 - ‘彤庭’; 中國漢代皇宮以朱紅色漆中庭，後泛指皇宮。

55) 『新華字典』 제10판, - “髹彤”; 髹彤是一個漢語詞語，是指丹漆。

56)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忽”; 조선시대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

표 8. 휴칠(髹漆) 관련 용어의 문헌 기록

No	년도	번역문	원문	문헌
1	1497	두 현의 공자묘를 대대적으로 수리해 휴칠을 화려하게 하였다.	於兩縣大理孔子廟.華以髹柒.	점필재집, 이준록
2	1697	만약 도감에서 휴칠을 사용한다면, 골회가 구차하게 떨어져 찌꺼기로 더럽혀져 모든 그릇에 베풀기에 적당치 않을 것입니다.	若爲都監髹漆之用 則骨灰之滄落滓穢 不合於陳器諸具	식암선생유고17권, 청금도사계
3	1763	일본사행록 절을 주로 휴칠로 한 것 또한 기이하지만	寄寺堪嗤髹漆主	해사일기, 수창록
4	1855	문묘중수 기문 도기를 굽고 쇠를 달구며 단화하고 휴칠하였으며	甄陶鍛冶 丹腹髹漆.	금역당집 5권
5	1855	연자루 중수 기문 마룻장, 난간, 기둥, 도리가 기울어지고 무너진 것과 휴칠, 단악이 벗겨져서 빛바랜 것을 다 고쳐서 바로잡으니	其板檻棟桷之傾圯者. 髹漆丹堊之漫漶者. 悉 改而正之.	금역당집 5권
6	1867	자연기 휴칠이라 어두운 청색 빛을 띠며 틀어짐 없이 단정한 모양이네	髹漆紺碧色 端正體無欹	완당전집
7	1867	해인사 중건상감문 고려 시대 옛날 새긴 내전의 대장이 있어 ...붉은 흙과 휴칠로 꾸미고 대화와 심침으로써 바치도다.	爰有麗代舊鑱內典大藏.飾之以赤堊髹漆.承之以大廈深簷.	완당전집7권

채색으로 꾸밀 때 사용한다고 했다.⁵⁷⁾ 중국 송대 문헌에는 기와와 벽돌·쇠·돌이나 흰 벽, 색 벽에도 휴동 칠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⁵⁸⁾ 한창균은 “붉은 칠을 한 활을‘동궁(彤弓)’이라 하고 화살을 동시(彤矢)라 한다.”고 해 단칠과 같이 휴동 또한 활과 화살의 칠에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⁵⁹⁾ 최근 궁궐영건의뢰에 기록된 단청의 재료를 분석해 인정전의 현판과 서까래에 식물성 유지에 송지 등을 첨가한 역청칠이 사용된 것을 추정하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⁶⁰⁾ 일본에서도 역청칠이 건물에 사용된 예와 그 특성에 관해 최근 연구되었으며 이를 ‘치양칠(チヤン漆)’이라 부른다.⁶¹⁾

4-3. 휴칠(髹漆)

사전에 ‘휴칠(髹漆)’은 “짙은 붉은색과 옅은 검은색 칠을 말한다.”고 했다.⁶²⁾ 일본에서는 ‘휴칠(髹漆)’에 대해 칠기제작의 근본이며 그 공정은 하지법과 상칠법로 나뉜다고 했다. 휴칠의 종류를 바탕칠(下地漆)과 상칠(上漆)로 구분해 바탕칠을 옷칠(漆), 아교(膠), 우유단백질바탕칠[Casein, 酪素], 양금[澁], 특수바탕칠(特殊下

地)로 나누고 특수바탕칠에는 돼지피, 송지, 토역청, 호분바탕칠이 있다고 했다. 투명바탕칠로는 점칠바탕칠이 있다고 했다. 상칠은 다시 하칠-중칠-상칠로 나누고 있어 일본에서는 휴칠을 옷칠로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³⁾ <표 8> 을 보면 휴칠은 공자묘, 문묘, 해인사 내전의 연자루에 사용되었다. 궁궐의 내부[殿上]에 적용되었으며,⁶⁴⁾ <문헌 3> 을 보면,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사신이 사찰에 휴칠을 사용한 것을 못 마땅히 여긴 기사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궁궐의 내부에 주로 휴칠을 사용하였으며, 사찰에는 옷칠 사용을 규제하였으나 해인사 등 일부 사찰에 휴칠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904년 『경운궁중건도감의뢰』에서는 덕수궁[慶運宮] 영복당, 준명당, 즉조당, 석어당의 건물 창호에는 옷칠 중 하나인 진칠(眞漆)과 매칠(每漆)의 사용기록을 찾을 수 있다.⁶⁵⁾ 또 <문헌 2> 에는 그릇의 칠에 옷칠 중 하나인 골회로 지장을 한 ‘목심저피칠[夾紵乾漆]기법’에 대한 사용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기법은 목재의 틀어짐을 막고 도장을 강화하기위해 심지를 넣어 도장을 하는 옷칠기법으로 덕수궁 석어당, 중화전, 즉조당, 영복당의 현판에 사용사례가 확인되었다.⁶⁶⁾ 궁궐의 경공장에는 옷칠을 다루는 ‘칠장(漆匠)’이 32명, 외공장에는 옷칠장이 1명 소속되어 있었다.⁶⁷⁾

날 때 손에 쥐던 물건.

57) [南朝] 『文選·何晏』 「景福殿賦」：“於是列髹飾之綉桶, 垂琬琰之文璫.”李周翰注：“髹飾, 丹漆也, 畫文綉之色於椽上, 涂以丹漆.(用赤墨色的油漆塗物爲飾)

58) [宋] 曾鞏, 『洪州東門記』：“其瓦甃金石髹形勳聖之費, 取于庫錢之常入者.”

59) 한창균, 앞의 책, 108~109쪽

60) 구옥희, 앞의 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82쪽

61) 窪寺茂, 「伝統的な 塗料の 再認識」(『建築文化財における塗装材料の調査と修理』, 東京文化財研究所, 2012), 15~31쪽.

62) 학술정보원, 『한국고전용어사전』 - ‘髹漆’.

63) 澤口 悟一, 『日本漆工の研究』, 美術出版社, 1966, 233~252쪽.

64) 『漢書卷九十七』 「外戚傳下. 孝成趙皇后傳」：“其中庭彤朱, 而殿上髹漆. 顏師古.

65) 1904, 『경운궁중건도감의뢰』, 「稟目」

66) 구옥희, 『조선시대궁궐 편액 복판의 단청기법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6권, 6호, 2017, 60쪽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편찬, 간행된 각종 문헌들을 대상으로 단청종류 관련 용어의 실제 용례를 분석해 당시 사용하던 단청의 용어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단청(丹青)의 단은 “丹”은 색이 ‘丹’색[적황색]으로 산화철이 주성분인 ‘적토(赤土)’를 지칭한다. 또 단청은 초상화 등 최상급의 그림을 단청이라 했으며, “화가 가 가진 재주”를 ‘단청’이라 부르거나, 걸출한 화가를 “단청의 명인”이라고도 해 최상의 그림과 실력을 갖춘 화가와 그 작품, 기술을 의미했다. 단청이 사용된 건물은 궁궐과 사찰, 사묘 등 상이한 성격의 건물에 모두 적용되었다.

2. 금벽(金碧)은 벽색(碧色)과 금색(金色)으로 산수와 문양을 그리고 주춧돌 등 보석, 장식철물로 직접 꾸민 장식성이 강하고 화려한 단청으로 사찰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지금의 금단청(錦丹青)이 비단무늬[錦紋]를 이용해 꾸미고 천의와 보석 등을 문양화해 벽화와 벽화로 장식하는 것과는 다른 직접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어느 시점엔가 실물을 문양으로 도안화하는 단계를 거쳐 현재와 같은 단청형식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단화(丹牘)은 붉은 흙인 토채(土彩)를 사용한 단청으로 왕이 사는 궁궐과 사묘, 객관 등 관립건축물이 주 사용대상이었다. 청초한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단화는 뇌록에 등황색 초엽을 장식한 지금의 상록하단 형식의 단청을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립건축물에 적용된 단화를 통해 조선단청의 ‘상록하단’의 특성이 일반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단벽(丹碧)은 단색(丹色)과 반대색인 벽색(碧色)이 상호대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특성으로 인해, “재주와 학문을 겸비한”,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였으며, 단청과 같이 ‘그림’을 지칭하기도 했다. 단벽은 사찰의 부속전각과 누정 등에 적용된 중간정도 등급의 단청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의 금모로단청 정도의 단청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단록(丹綠)은 에메랄드 색상인 청토바르기로 바탕을 칠하고 가장자리에 획이 그은 소박한 형식의 단청으로 지금의 굿기단청과 유사한 단청인 것으로 파악되며, 산간의 초옥 등 격이 낮은 건물에 적용했던 단청이다.

6. 단칠(丹漆)은 지금까지 옷칠로 해석되어 왔던 것과 달리 목재 뿐 아니라 쇠 등 다양한 바탕재료에 사용된 적색과 흑색의 유칠이다. 단칠은 까다로운 시공 기술에도 불구하고 색상이 풍부하고 가격이 낮아 건물의 외부기둥과 난간에 적용되었다.

7. 휴동(髹彤)은 유칠중 하나인 역청칠로 기와와 벽체, 서까래, 현관의 복판 등 방수가 필요한 부위에 사용되었다. 역청칠은 식물성유지에 송지 등 다양한 재료를 추가해 사용했다.

8. 휴칠(髹漆)은 붉은색과 검은색의 옷칠로 붉은 칠이 주로 사용되었다. 궁궐의 내부기둥과 외부 창호, 현관의 복판 등에 사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시작으로 근대기 이후 출간된 문헌을 대상으로 한 단청의 종류 관련 용어와 오토(五土), 삼토(三土), 향채(鄕彩) 등 일부 해석이 필요한 용어, 도채기법 관련된 홀단청, 박채(薄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개념정리가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般若經八千頌』
2. [周] 『禮記·月令』
3. [先秦] 庄周, 『莊子·外物』
4. [晉] 張華, 『勵志詩』
4. [東晉] 葛洪, 『抱朴子·守壻』
5. [東漢] 班固, 『漢書』, 『司馬相如傳』, 『漢書卷九十七』
「外戚傳下·孝成趙皇后傳」
6. [漢] 『蒿里』
7. [漢] 王充, 『論衡·亂龍』
8. [唐] 沈亞之, 『移佛記卷六』
9. [唐] 柳宗元, 『游黃溪記』
10. [唐] 『科擧言第([五代] 王定保 著)』
11. [唐] 房玄齡 等, 『晉書·顧愷之傳』
12. [五代] 王定保, 『唐擧言·統序科第』
13. [宋] 陸游, 『桃源憶故人·應靈道中』
14. [宋] 『思故山賦』
15. [宋] 畢沅, 『續資治通鑒(宋孝宗淳熙七年)』
16. [宋] 曾鞏, 『洪州東門記』
17. [宋] 魏秀仁, 『花月痕』 第五回
18. [南朝] 何晏, 『文選 卷11』, 「景福殿賦」
19. [南朝, 宋] 范曄, 『後漢書·祭祀志上』
20. [南朝] 梁 劉勰, 『文心雕龍·情采』
21. [清] 陳夢雷, 『木瘦瓢賦』
22. [清] 唐甄, 『潛書·非文』

67) 『經國大典』, 「工典」

30 논문

23. [淸] 王暉, 『今世說·寵禮』
24. 김상헌, 『청음집』, 1671
25. 김석주, 『식암선생유고』, 「청금도사계, 17권」, 1658
26. 김정희, 『완당전집, 10권 5책, 제7권, 9권』, 1867
27. 김종직, 『점필재집』, 「이준록, 2권1책」, 1497
28. 김창협, 『농암집(송혁기 역)』, 한국고전번역원, 2016
29. 김홍남, 『중국고대회화의 탄생』, 「중국고대회화의 탄생과 전개」, 국립중앙박물관, 2008
30. 『經國大典』, 「工典」, 1485
31. 『景慕宮儀軌』, 「卷之一, 圖說」, 1783
32. 『慶運宮重建都監儀軌』, 「稟目, 後」, 1906
33. 『경향신문』, 2018년 11월1일 기사
35. 구봉령, 『백담집4권』, 1645
37. 구옥희, 「17세기 이후 궁궐단청기법의 재현을 위한 시험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38. 구옥희, 「조선시대궁궐 편액 복판의 단청기법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6권, 6호, 2017
39.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행록선집Ⅷ』, 한국학술정보, 1976
40. 『남계집』, 17세기
4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한국한자어사전』, 1996
42. 노경임, 『경암집1권』, 1784
43. 노사신 등, 『동국여지승람 제1권』, 「京都上」, 제10권, 1486
4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수기술교재』, 문화재관리국, 1977, 1978, 1980
4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표준시방서』, 문화재관리국, 1974
46. 문화재청, 『문화재표준시방서』, 문화재청, 2014
47. 배용길, 『금역당집 5권』, 1855
48. 『사직서의례 권1』, 「祭器圖說」, 1783
49. 서균, 『선화봉사고려도경 제28권』, 「공장1」, 1123
50. 서영보, 『죽석관유집』, 조선후기
51. 서거정 등 23인, 『동문선』, 1478년, 한국고전종합DB에서 동문선 번역본, 18권, 66권, 78권, 82권
52. 『승정원일기』, 한국고전종합DB
53. 新華辭書社, 『新華字典제10판』, 人民教育出版社(北京), 2010
54. 신위, 『경수당전고』, 19세기 초
5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56. 이기영, 『불전해설』, 한국불교연구원, 1978
57.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60권 60책』, 「元史·世祖本紀」, 19세기
58. 이두, 『揚州畫舫錄 권17』, 「工段營造錄」, 18세기
59. 이승소, 『삼탄집 제1권』, 1514
60. 이의봉, 『북원록 제2권』, 1760
61. 이재창, 『불교경전개설』, 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 1982
62. 이창진, 『기본광물·암석용어집』, 한국학술정보, 2010
63. 이익, 『성호전집 제53권』, 「백봉서원 중수기」 1744
64. 이은희, 「고려시대 단청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65. 이해응, 『계산기정1 ~5권』, 1804
66. 일연, 『삼국유사』, 황룡사9층탑 조, 13세기
67. 임영주·전한효, 『문양으로 읽어보는 우리나라의 단청』, 태학원, 2007
68. 안정복, 『동사강목 제14상』, 1778
69. 遇見眞, 發現美, 『藝術百科』
70. 예용해,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 81호』, 문화재관리국, 1970
71. 조엄, 『해사일기』, 1763
72.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73. 張起仁·韓奭成, 『韓國建築大系Ⅲ, 丹青』, 普成閣, 1998
74. 정도전, 『삼봉집』 제4권, 1397
75. 정약용, 『수색집2권』, 1658
76.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종합DB
77. 최석정, 『명국집9권』, 1721
78. 허균, 『신편 국역 성소부부고(민족문화추진회 역), 제16권』, 한국학술정보, 2006
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80. 『漢語詞典』
81. 한창균, 『북한고고학 미술사 용어집』, 백산자료원, 1996
82. 田久保, 實太郎; 滑川, 眞吉, 『朝鮮丹綠鑛山地域の稀元素鑛物に就て』, 京都大學, 1944
83. 澤口 悟一, 『日本漆工の研究』, 美術出版社, 1966.
84. 東京文化財研究所, 『敦煌石窟 7』, 文化出版局, 2001.
85. 『デジタル大辭泉 (小學館)』
86. 窪寺茂, 「伝統的な 塗料の 再認識」, 『建築文化財における 塗装材料の調査と修理』, 東京文化財研究所, 2012.
87. 『京都新聞社』, 2018년 5월14일자 기사.
88. <http://www.travelchina.gov.cn>.

접수(2018. 10. 15)

수정(1차: 2018. 12. 13)

게재확정(2018. 12. 28)